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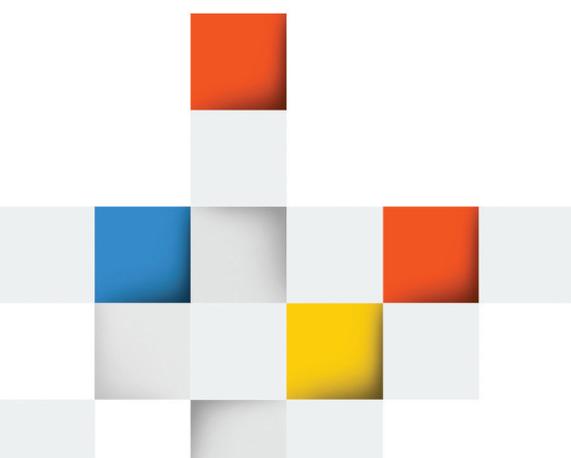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박원호 (서울대학교)

- 한국의 선거참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특히 지난 2020년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여주었다.
- 코로나19 발발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투표율은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진행되는 투표율의 증가를 반영한다.
- 2017년 이래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비선거적 정치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방역과 관련된 의료기관,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다.
- 부패인식지수(CPI)는 외국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2016년을 최저점으로 몇 년간에 걸쳐 상승을 보인 후, 2020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 국내 일반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한 부패인식조사에서도 2016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관찰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사회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상당한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

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통하여 이러한 최근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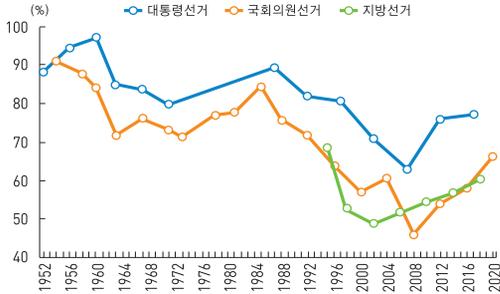
### 선거참여

선거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이고 핵심적 수단이다. 높은 선거 참여는 시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정책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며, 동시에 이들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관여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XI-1]은 한국 각급 역대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987년 이후 급속한 하락을 겪은 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타난 66.2%의 투표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었다.



[그림 XI-1]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20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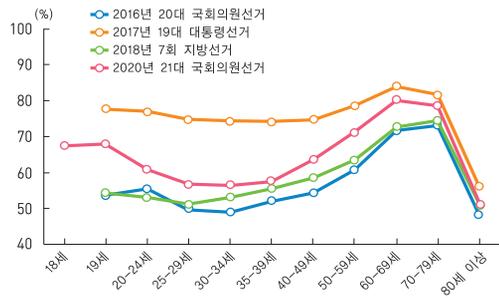
이러한 투표참여의 수준은 인구학적 및 정치·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그림 XI-2]는 특히 연령대별 투표율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몇 개 주요 선거에서 드러난 경향을 보여준다. 관찰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연령대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와 70대의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투표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집단은 대체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 사이 투표율의 격차는 선거관심도와 직결된다. 예컨대 지난 2017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를 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집단 간 투표율의 격차가 아주 두드러지는 않았다. 이 격차는 여타의 선거들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편,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초입에서 시행되었던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예상을 뛰어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XI-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16년에 치러졌던 20대 국회의원선거나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전 연령집단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폭이 가장 큰 집단은 50대의 중년층과 60대,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으로 거의 대통령선거 수준의 투표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2] 최근 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6-2020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2) 사용된 자료는 투표소기준 10% 샘플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018,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 201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6.

### 비선거적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여러 패턴에 대한 서구의 정치학 문헌은 상당히 그 전통이 깊다(Verba and Nie, 1987). 예컨대 가장 '손쉬운' 형태의 참여를 투표(voting)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어렵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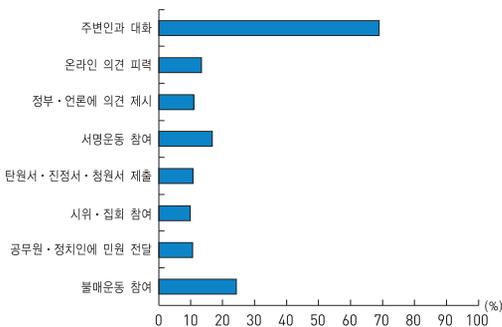


양한 형태의 참여는 선거운동(campaigning), 지역활동(community activity), 대표자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등으로까지 정치참여의 영역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최근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참여활동들, 예컨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온라인 청원 활동 등을 감안하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최근의 촛불집회라는 독특한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의 전통을 생각해 볼 때 비선거적 참여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그림 XI-3]은 최근 한국인들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패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69%로서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다른 형태의 참여 경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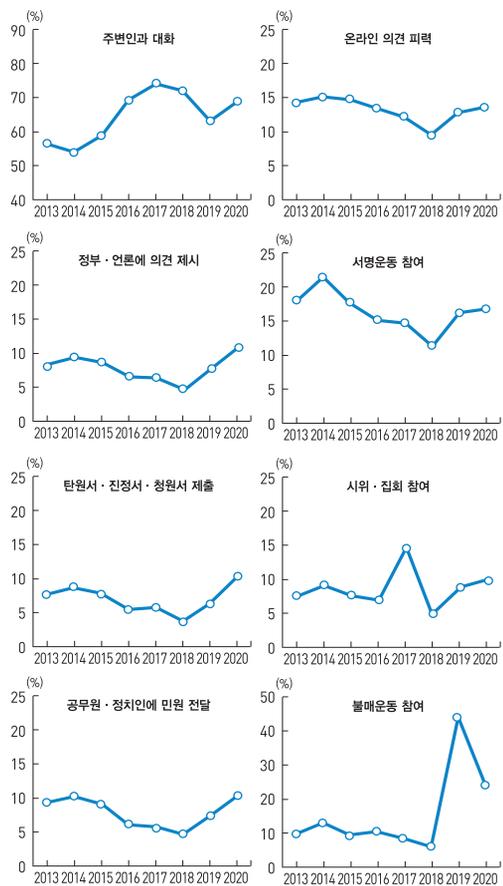
[그림 XI-3]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20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그러나 특기할 사실은 한국에서 여타의 보다 ‘어려운’ 형태의 참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참여활동의 특성에 따라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활동들도 있다. [그림 XI-4]는 위에서 보인 8가지 비선거적 정치참여활동들의 추세를 나타

[그림 XI-4]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0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추세를 드러내 보기 위해 세로축(y축) 배율을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낸 것이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던 2017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와 동학이 관찰되고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주변인과의 정치토론이 가장 활발하였고, 시위·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때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2017년이었다. 이는 2016년 말에서 2017년으로 이어진 촛불집회 등의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온라인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최저점은 2018년이었고, 그 이후 예외 없이 모든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의견 피력’이나 ‘서명운동 참여’, 그리고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전달’ 등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활동과 직결된 모든 형태의 활동들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신뢰와 부패

이 절에서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신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웃과 정치체제에 대해 지니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며,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한지 2년째인 현재,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시민들이 의료진에 대해 느끼는 신뢰라든지, 방역당국(그것이 중앙정부이건 지방자치단체이건)에 대한 신뢰는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그림 XI-5]는 한국시민들의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관찰되는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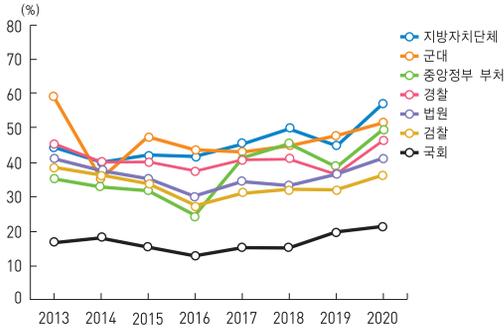
첫째, 전반적으로 사회 내의 신뢰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기관(국회)이건 가장 높은 기관(의료기관)이건, 국가와 사회가 대대적 위기를 겪었던 2020년은 국민들의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신뢰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고,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눈을 돌려보아도,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가 눈에 띄지만, 동시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관들은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기관들이다. 이러한 신뢰의 증가가 해당 기관들의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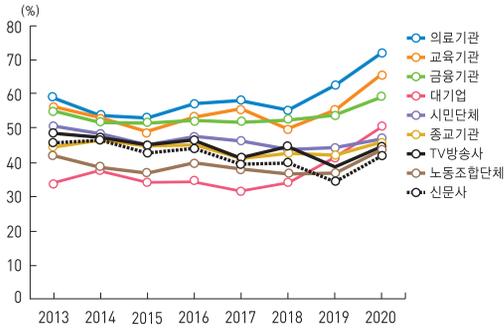


[그림 XI-5]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20

1) 공공기관이나 제도



2) 민간기관이나 제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국면에서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언급할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공공기관들은 모두 방역 대응과 관련한 대민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조건임에 반해, 정치와 사회 시스템의 기

지에 존재하는 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부패는 그 자체로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신뢰수준을 하락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Warren, 2014).

한 나라의 전반적인 부패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일은 물론 간단하지 않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고 직접적인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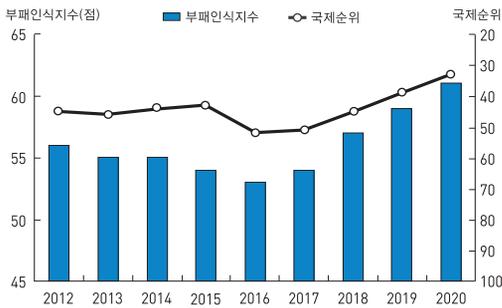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이다. 해당 지수는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한 각 나라의 부패수준을 척도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6]은 부패인식지수와 한국의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56점, 세계 45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그 이후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세계 52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와 순위를 달성하였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부패가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부패인식지수와 달리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는 일반 기업체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 공무원의 부패 상황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XI-6] 부패인식지수(CPI)와 한국 순위, 2012-2020



주: 1)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기업경영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한 전 세계 180여 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0-10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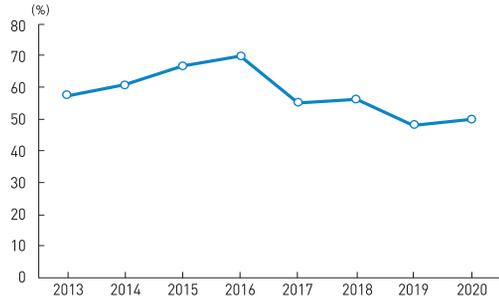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www.transparency.org>).

[그림 XI-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업체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부패정도는 2016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국제적으로 평가된 부패인식지수(CPI)로도 확인된 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을 기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가설적 설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2016년을 기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심각성 인식, 2007-2016



주: 1)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공공부문(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 또는 '심각' 또는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계층상승의 기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학술적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증폭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고 그것이 포괄하는 영역 또한 매우 광범하다. 공정성이 함의하는 의미의 영역이 매우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성의 개념이 경제적 분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대우에 관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인지 결과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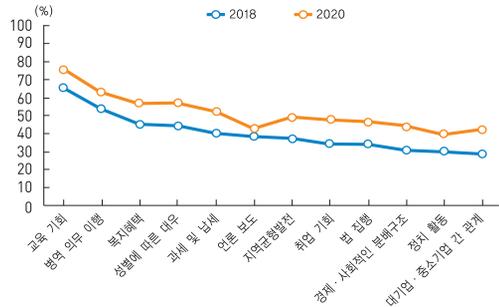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핵심적인 논점은 ‘공정성’이 기존의 기계적 ‘평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능력과 노력을 고려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한준, 2018). 가장 최근의 논의는 ‘능력주의(meritocracy)’와 연관지어 공정성 개념의 이중적 함의를 지적하기도 한다(Sandel, 2020).

이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성이라는 말의 내용과 원인이 무엇이었던 그것이 사회통합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신뢰의 하락과 정치에 대한 냉소, 나아가 체제에 대한 불신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의 실패가 일어나는 시작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림 XI-8]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이는 두 개의 선은 2018년과 2020년을 대조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2020년은 2018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병역의무의 공정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 과반이 공정하다고 인정한 영역이 없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영역은 경제(중소기업과 분배), 정치, 법 영역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기회는 2018년도에는 65% 정도가, 2020년에는 70% 이상이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가장 공정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XI-8] 사회 영역별 공정성 인식, 2018, 2020



주: 1) 2018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공정’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인 항목들은 2018년 수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 2020.

공정성의 의미는 물론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 각 집단에 따라서 이를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같을 수 없으며, 남녀가 인식하는 차별의 대상이나 기준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에 대한 인식은 인구집단별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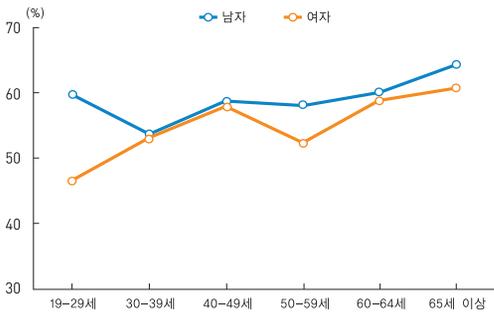
소개된 여러 가지 공정성의 영역 중에서 비교적 최근 한국의 여론지형을 달구었던 논쟁은 젠더갈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림 XI-9]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공정성 평가 영역 중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2020년 조사를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말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별 공정성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예외 없이 남성

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여성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성별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 간 격차는 특히 2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고연령일수록 성별에 따른 대우가 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대 남성들과 50대 여성들의 경우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에 따른 대우가 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XI-9] 성 및 연령집단별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 인식, 2020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공정'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0.

셋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대에서 보이는 극심한 격차이다. 20대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성별에 따른 대우가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20대 남성들은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 성별에 따른 대우가 훨씬 더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20대에서 보이는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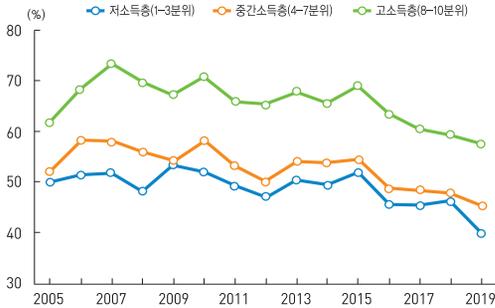
간 인식의 차이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정의하는 매우 핵심적인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매우 추상적이고 이중적이다. 응답자에 따라 공정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과의 평등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능력에 따른 차별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평가가 다를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이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문항과 측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정성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경로는 그것을 결과나 전망으로 평가하는 방법일 것이다. 즉 과정과 결과, 경제적 분배와 사회문화적 대우가 섞여 있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측정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림 XI-10]은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사회적 배분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해당 측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결과를 200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XI-10] 소득분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전망, 2005-2019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5-2019.

첫째, 측정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 기간을 걸쳐

상당한 상승과 하강 국면이 교차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이고 일관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하강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훨씬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격차는 약 12-22%p 정도이며, 예외 없이 전 기간에 걸쳐 격차를 보여준다.

셋째, 이상과 같은 격차는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서 보다 현저하며,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인식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 간 불균형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사회통합을 위한 의제들이 어떤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아. 2015.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HERI Report」 2. 중견기업연구원.  
 한준. 2018.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개발원.  
 Eric M. Uslaner. 2014.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Heywood, Paul M. 2014. *Routledge Handbook of Political Corruption*. Routledge.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